

## 촛불 민심이 이끌어낸 '장미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가 안보인다

### Ⓟ '선택 2017' 대선 D-12

촛불 민심이 이끌어 낸 장미 대선이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3·4·5면> 사회 전반의 적폐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구체적 개혁 플랜과 새로운 시대 비전에 대한 치열한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행행하고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등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흥당 경쟁이 계속된다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협치는 물 건너가고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오히려 고조되지 않느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우선 같은 야권이자 후보를 뿌리도록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지면서 경쟁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이다.

양 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검증용 명분으로 네거티브 성격이 짙은 각종 의혹 제기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막가파식 논쟁으로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적폐 연대'라는 프레임을 걸고, 국민의당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패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양 당의 선대위에서는

### 적폐타파 등 정책 경쟁 보다 네거티브·포퓰리즘 난무 민주·국민의당 이전투구에 집권해도 개혁 공조 기대나

상대 진영에 대해 '같이 할 수 없는 세력'이라는 감정 섞인 발언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충돌이 이어지면서 야권이 집권한다 해도 '협치와 공조'가 어려워 사회 전반의 적폐 청산과 미래로 나아갈 개혁 드라이브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야권의 비전 경쟁이 실종되면서 국정 농단 사태에 자유롭지 못한 보수 진영의 혁신도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뼈를 깎는 반성보다는 기존의 지역과 진영 구도를 자극하며 대선과 대선 이후의 활로를 찾아가고 있다. 이에 보수 혁신을 내세웠던 바른정당은 오히려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 TV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그 어느 후보도 국민 통합을 이끌며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비교한다면 현재의 대선 주자들은 '도토리 키재기'

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포퓰리즘 공약도 논란이다. 재원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각종 민생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7~8% 이상이 되고 폭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에도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후보의 장밋빛 공약도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유권자들로부터 이번 대선을 국가대개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인권평화100만국민연대 페이스북 공개그룹'이라는 단체는 일간지에 대선주자와 국회에 국가대개조를 촉구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제라도 네거티브 경쟁에서 벗어나 개혁과 혁신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야권의 협치 및 공조 방안을 내놓아 민심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어느 당과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구조라는 점에서 강력한 민심의 지지와 정치권의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며 "결국 후보 민심은 보다 성숙한 집권 비전을 내세우는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8대·전남 15대 주요 사업 국민의당, 광주·전남 공약 발표

국민의당은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조9000억원 규모의 안철수 후보 광주광역시 사업인 '광주미래 발전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안 후보 공약은 ▲광주정신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쾌적한 주민전환 스마트 도시 조성 등 3개 프로젝트에 8대 주요 사업들로 이뤄져 있다.

8대 주요사업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진

상규명(80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5조2912억원),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 중심도시 조성(1조5200억원) 등이다.

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7500억원),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3조원), 미래건축연구개발 육성으로 스마트시티 조성(1조원), 군공항 국가주도이전 추진(5조7480억원), 국토 서남권 광역교통망 구축(3조6777억원) 등이다.

세부사업으로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가공인보고서 발

간, 광주교도소 부지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기독교 근대 역사문화 유적지 양립동 일대 관광벨트 조성, 빅데이터산업 집적단지 조성, 광기술로봇센터 설립 등이 포함됐다. 미래형 자동차 공용생산 플랫폼 생산라인 조성, 전장부품 허브도시 조성, 에너지신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스마트건축 도시재생 특화단지 조성, 광주~나주·화순 광역철도 건설, 광주 제3순환도로 4·5구간 건설 등도 반영됐다. 권은희 광주시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높은 사명감으로 추진에 왔다"며 "지역균형발전 모델의 출발점이 광주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도 이날 기존 전남 5대 공약에 10대 공약을 추가해 총 15개 공약을 내놓았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문화 여성들 사전투표 체험 제19대 대통령선거를 13일 앞둔 26일 광주시 광산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대선 전에 ... 사드 기습 배치

### 주한미군, 발사대·사격통제레이더 곧 시험가동 들어갈 듯 중국, 강력 반발 ... 한미에 배치 취소·관련 설비 철거 촉구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관련기사 2·3·8면>

반입된 장비를 연결하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실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미군은 이날 0시부터 4시간여 만에 사드 발사대 2~3기,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 대부분을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사격통제 레이더는 해체하지 않고 완성품으로 들어왔다. 레이더는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트레일러 차량 형태로 이뤄졌다. 미군이 궤에 배치한 레이더와 같다.

미군은 발사대와 사드 레이더 등 장비 대부분이 성주골프장에 배치됨에 따라 이른 시일내 초기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장비 시험가동에 들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측은 성주골프장 내에서 별도

시설공사 없이 관련 장비를 신속하게 배치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성주골프장이 평탄하게 이뤄져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발사대가 자리할 곳만 사각형 형태로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방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임무택 작가 '1997 망월' 사진전 ▶6면

세월호 시계 '10시 17분 12초' ▶7면

시간속을 걷다나주 평화이발관 ▶18면

다. 하지만, 미군측이 군사적 수준으로 신속하게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하면서 국방부의 이런 설명은 결국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주한미군이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배치하자 중국 외교부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겸상(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는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 정세를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중국 측의 전략 안전 이익에 엄중히 훼손되며 중국 측은 미국과 한국이 지역 균형을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에너지밸리! 광주의 미래를 밝히다

창조적인 변화, 에너지신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 에너지 ENERGY VALLEY

- 미래형 에너지신산업 육성
- 지역산업·연구기반 고도화
-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도시 건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